

제4차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 실시



협회에서는 구로동 산업단지공단(KICOX) 교육장에서 2009년도 제4차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기용품 제조업체 대표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령 및 품질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일 시 : 2009. 9. 3~ 4(2일간)
- 장 소 : 구로동 산업단지공단 교육장
- 내 용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
 - 전기용품 시험방법 및 규격 등

불법 수입전기용품 유통방지대책 회의



협회에서는 『불법 수입전기용품 유통방지 대책연구』와 관련하여 제2차 지분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표준원 최재본 연구관, 관세평가분류원 서승현 팀장 및 각 인증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불법 수입전기용품의 근절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일 시 : 2009. 9. 22(火), 16:00 ~ 18: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원 최재본 연구관, 관세평가분류원 서승현 팀장, 각 인증기관 담당자
- 내 용
 - 불법 수입전기용품 유통 문제점 분석
 - 불법 수입전기용품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토의



2009제품안전의 날 개최

2009년 9월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2009제품안전의 날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제품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관련산업 기업 및 유공자들과 부대행사로 마련된 제품안전 UCC공모전 수상자들에게 표창이 수여 되었다.



▲ 관계자 및 관련 단체 4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 행사 이모저모 ※

- ① (주)LG화학 김종현 전무가 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② 많은 관련 업체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포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하였다.
- ③ 협회 김봉균 회장이 제품안전UCC공모대회 협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9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 유공자 부문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1	(주)LG화학	김 중 현	전 무	훈 장
2	(주)흥진에이치제이씨	안 중 구	대표이사	포 장
3	LS산전(주)	박 동 원	전무이사	대통령
4	삼성SDI(주)	조 한 철	상 무	국무총리
5	동양매직(주)	김 용 만	상 무	국무총리
6	삼성전자(주)	최 근 영	그룹장	장 관
7	동신전기(주)	이 현 규	대표이사	"
8	동광조명산업(주)	박 용 순	대표이사	"
9	대은조명	이 상 문	대 표	"
10	(주)디보스	홍 재 창	대표이사	"
11	(주)대한트랜스	이 장 용	이 사	"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곽 종 근	선임연구원	"
13	한국전기신문사	안 광 훈	선임기자	"
14	구미시청	백 재 룡	지방공업주사보	"
15	웅진코웨이(주)	양 상 열	선임연구원	"
16	유닉스전자(주)	윤 봉 희	수석연구원	"
17	(주)까사룩스	신 쾌 휴	대표이사	"
18	금호타이어(주)	윤 종 대	부 장	"
19	(주)LG화학	이 정 호	과 장	"
20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손 귀 만	책임연구원	"
21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지 윤 규	과 장	"
22	파나소닉전공신동아(주)	이 종 호	부 장	원 장
23	동건공업(주)	박 규 상	공장장	"
24	(주)위너스	추 창 범	과 장	"
25	자애메디칼	유 석 준	대 표	"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유공자 부문(계속)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26	(주)부방테크론	신 흥 기	과 장	원 장
27	(재)FITI시험연구원	임 상 기	팀 장	"
28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하 광 배	팀 장	"
29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방 학 규	선임연구원	"
30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윤 명 속	모니터	"
31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조 희 옥	모니터	"
32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 진 원	연구원	"
33	(주)흥진에이치제이씨	고 기 현	대 리	"
34	(주)유니온랜드	송 상 열	차 장	"

- 단체 부문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1	국제통신(주)	김 헌 수	대표이사	장 관
2	동양전자산업(주)	지 흥 세	대표이사	"
3	우성전기(주)	이 종 식	대표이사	"
4	대신산업	김 영 국	대 표	"
5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 규 연	협회장	"
6	(주)아이레보	하 재 흥	대표이사	"
7	PKA	구 을 한	대 표	"
8	(주)금성토탈퍼니처	고 중 환	대표이사	"

제품안전UCC공모대회

- * 대상(2) : 이호연(영훈초등학교 / 글짓기), 송승환(개인 / 포스터)
- * 금상(4) : 최석우(한천중학교 / 포스터) 등 4명
- * 은상(4) : 공정연(신흥초등학교 / 포스터) 등 4명
- * 동상(8) : 이진우(인덕원어린이집 / 포스터) 등 8명
- * 가작(8) : 조영선(개인 / 동영상) 등 8명



2009 제품안전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LS산전(주) 박동원 전무이사

“세계 1등 제품으로 안전 강국 토대 마련할 것”

LS산전(주)
박동원 전무이사



“전력기기 산업 현장에서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뒤돌아보니 그동안 참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2009년 9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동원 LS산전(주) 생산/기술 본부장은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동료 및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려야 한다.”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희망했다.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업적 중 하나만 꼽아 달라는 부탁에 박동원 전무는 해외 시장 개척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우물 안 개구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해외 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도 자칫 안주하기 쉬운 상황이었지요.” 일본과 기술 협약을 맺어 반쪽짜리 국산 제품을 만들던 시절에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한 터라 당시에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기 힘들던 때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국산화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어요. 당분간 힘들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3%도 안 되는 국내에서 시야를 넓히면 얼마나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죠.”

LS산전 전신인 LG산전 전기기기 공장장 시절 Meta MEC 시리즈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전력기기 시장의 표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박동원 전무는 Meta-MEC 개발 완료 후 해외사업담당을 자원하였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사업담당 및 해외사업부장 재직 기간 중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 그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수출을 1,18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동 수출 실적은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 매년 3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LS산전 전체 매출의 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산업재는 소비재와 달리 규격과의 전쟁입니다. 어느 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유행(Trend)을 형성하고 전 세계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 소비재 히트 상품과 다른 점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제정해 놓은 규격 장벽을 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당시를 떠올리며 박동원 전무는 당시 어려웠던 점으로 규격 장벽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고,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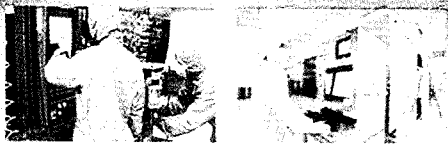


줄이고 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전력시험기술센터>를 자체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LS산전이 자랑하는 전력시험기술센터(Power Testing & Technology Center, 이하 PT&T)는 청주 제2제조공장 부지 내 자리하고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공된 PT&T는 LS산전 제품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체 시험 센터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매 시기를 자꾸 놓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시험기관에 시료를 보내서 순번을 기다려 시험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 많은 시험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다시 기다렸다가 또 받아야 했어요.” 자체 시험센터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판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출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PT&T를 통해 수많은 개발 시험을 함으로써 출시 전 완벽한 제품 성능을 확보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어떤 기업도 갖지 못한 최대 장점입니다.” 현재 LS산전 PT&T는 UL, CE, KEMA, CESI 등과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Susol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시장 안착에 성공한 것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 항목별 테스트를 직접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동원 전무는 해외사업부장에서 국내 전력기기사업부장으로 발령받





자마자 Susol 제품 개발에 매달렸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기존 Meta-MEC 제품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방어하고 목표 매출 달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잉 투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했을 때처럼 다시 한 번 도전을 시도하지 않으면 언젠대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박동원 전무의 판단은 다시 한 번 들어맞았다. 세계 시장에서 FTA를 통한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국내 시장의 선진 고급화에 맞물려 전력 시장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풍토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Susol 제품 개발 당시 이미 Metasol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라고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라며 웃는 박동원 전무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야 함을 강조했다. Meta-MEC으로 지킨 국내 시장을 이제는 Susol과 Metasol 브랜드로 수준을 높이고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전력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통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전력 품질과 장기적인 효율성을 검토하여 투자하는 것이지요. 세계 일류 제품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박동원 전무는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욱 많다고 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겨우 국내 시장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세계 7대 Maker를 꿈꿀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그 꿈이 실현될 날이 오도록 더욱 노력해야죠.” Global Top 7은 박동원 전무가 전력기기사업부장 시절 내건 슬로건이라고 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는 평소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력 제품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2008년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 시장에 침투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는 제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다. 당시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만큼 잘 베껴 만든 중국산 모조품이 유통되었을 때 박동원 전무는 영업력과 마케팅 인원을 총동원하여 유통업자들을 찾아내고 근절시킨 바 있다.

“신뢰와 안전은 흉내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는 그만한 노력을 쏟았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하니까요.” 현재 생산/기술 본부장으로서 LS산전 국내외 제조공장 총괄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박동원 전무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다양한 제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전력 소비 다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그 동안 함께 한 동료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자신을 믿고 지원해 준 가족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며 수상 소감을 마감했다.